



오순제 | 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  
(osj6680@hanmail.net)

# 오산천의 역사와 문화

오산(烏山)은 삼국시대에 매흘군으로 ‘매(買)’는 ‘水’를 나타내는 ‘미르’를 나타내며 ‘홀(忽)’은 ‘고을’을 말한다. 신라 때에는 수성군, 고려 때에는 수원군에 속했고 1941년에 수원군 오산면이 1949년 화성군 오산면으로 이관되었고, 1960년에 화성군 오산읍, 1989년에 오산시로 승격되었다.

오산이 속한 수원은 현재의 수원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원대학교 부근에 수원고읍이 있었으나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능을 옮겨서 조성하는 동시에 화성(華城)이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만들어 고읍을 이곳으로 옮기고 백성들마저 이주시켰다. 수원의 고읍성에 대해서 옛 문헌에는 둘레가 270보 혹은 4,035척이고 성 안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본래 낮은 산능선을 이용하여 계곡 아래의 평지까지 에워싼 포곡식이었으나, 현재는 성터의 대부분이 무너졌으며, 산능선에는 290m, 평지에는 270m 정도가 잔존해있다. 성벽은 윗부분이 2~2.5m이고, 높이는 4~5m, 바깥쪽 경사면은 7~8m 남아있으며 동문터와 서문터로 추정되는 부분도 남아있다. 고려시대 기와와 도기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곳에 수원의 고읍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 1. 금암동과 외삼미동 고인돌

금암동에는 9개의 지석묘가 남아있는데 특히 2호지석묘의 뚜껑돌에는 3개의 성혈이 남아있다. 성혈이란 움푹하게 판 구멍으로 이것은 여자의 생식기를 나타내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고인돌을 만들던 청동기시대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므로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외삼미동에는 남방식과 북방식의 고인돌이 2기가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북방식이라 불리는 탁자식고인돌이, 그 남쪽에는 남방식이라고 불리는



(그림 1) 금암리 고인돌

바둑판식고인돌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쪽지방인 사리원에 남방식고인돌이 있고 남쪽지방인 고창에 북방식 고인돌이 혼재해 있어 이러한 남방식, 북방식 개념은 현재 탁 자식과 바둑판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 2. 독산성과 세마대

독산성(禿山城)은 황구지천의 넓은 벌판을 굽어보는 산위에 테를 두르듯이 쌓은 테뫼식산성으로 그 둘레는 1,100m이며 내성은 350m의 산성이다. 독산성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시대에 사용한 성으로 신라의 통일기나 고려시대에도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다.



(그림 2) 독산성에서 내려다 본 황구지천

이 산의 정상부에 세워진 세마대(洗馬臺)라는 정자는 임진왜란 당시인 선조 26년(1593)에 이어송이 이끄는 명나라의 원군이 평양을 수복하고 남하하자 전라도 순변사였던 권율 장군이 이들을 도와 서울을 수복하고자 2만의 군사로 북진하여 이곳에 진을 치고 기등청정이 이끄는 왜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왜장은 이에 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위를 하고 기다렸다. 권율장군은 이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백마를 산꼭대기에 놓고 흰쌀을 말위에 끼었으며 말을 씻는 시늉을 하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왜군들은 말을 씻을 정도로 성내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퇴각하였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세마대(洗馬臺)이다.

## 3. 보적사

독산성에 정상부에 자리 잡은 절로 고려 초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질병의 치료를 비는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이 중심이 되고 있다. 불교 건축에서 석가여래를 모신 곳을 대웅전,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을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이라고 부르고, 아미타불을 모신 곳을 미타전 또는 무량수전, 극락전이라고 부르며, 약사불을 모신 곳을 약사전, 관세음보살을 모신 곳을 관음전, 지장보살을 모신 곳을 지장전 또는 명부전이라고 부른다. 그 앞에는 3층석탑이 남아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용주사를 세우면서 재건되었다.

## 4. 켈리사

조선조 중종 당시 문신이며 공자의 64대 손인 공서린(孔瑞麟, 1483~1541)이 이곳에 서재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다. 정조 17년(1793)에 왕이 옛터에 사당을 세우게 하고 공자가 살던 중국 산둥성 곡부의 마을 이름을 따서 켈리로 고쳤다.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폐되었다가 1900년 사당이 다시 세워졌으며 강당은 이듬해에 세워졌다. 1993년 중국 산둥성에서 기증한 공자의 석조상이 안치되어 있다.

솥을대문의 삼문에는 성묘(聖廟)라는 현판이 있고 그 앞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하마비가 서있다. 그리고 공자를 모신 사당과 책을 두었던 장각(藏閣)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공간을 서쪽에, 학문을 가르치던 강당을 동쪽에 나란히 배치한 동학서묘(東學西廟)의 배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곳의 성산전에는 왕이 오르던 계단 가운데에 봉황을 새겨 넣은 돌판인 답도(答道)가 있어 그 위용을 더하고 있다.

장각에는 중국의 성적도를 본떠서 만든 공자의 행적을 목판에 새긴 성적도(聖蹟圖)가 보관되어있다. 이곳은 논산에 있는 켈리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두개밖에 없다.

중국 산둥성 곡부에는 공자의 사당인 공묘와 그의 저택인 공부, 공씨 일가의 가족묘지인 공림 등 삼공(三孔)이 남아있

다. 삼공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자의 사당인 공묘와 공자의 저택인 공부로 가는 입구인 궐리(闕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곳은 공자님이 살던 거리를 ‘궁궐 마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림 3〉 중국 산둥성 곡부의 공자사당

공묘(孔廟)에는 우리나라의 홍살문과 같은 여러 개의 패방과 영성문, 성시문, 흥도문, 대성문 등을 지나면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건물이 나타난다. 대성전은 높은 기단위에 황금빛으로 칠한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황제의 궁인 자금성 외에 유일하게 황금지붕을 가진 건물이다. ‘전(展)’이란 태화전, 근정전과 같이 황제나 왕이 쓰던 건물에만 사용되었으나 대웅전, 대성전과 같이 성인들을 모신 건물에도 그 용어를 허용하였다.



〈그림 4〉 궐리의 담도

공부(孔府)는 공자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며 관청으로부터 공자의 자손들은 한나라 시대 이후 제후와 동등

하게 대우했으며 성리학이 풍미한 송나라 때부터는 연성공이라는 관직을 주고 곡부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연성공인 77대손 공덕성이 공자를 타도하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대만으로 피신한 후로 반세기 동안 주인 없는 집이 되어 버렸다.

공림(孔林)은 소나무와 측백나무들이 울창한 숲속에 공자와 공자의 아들, 공자의 손자, 그의 자손들 대대로 수많은 공씨들이 묻혔다. 공림에 있는 묘비만도 전부 7,000여기라고 한다. 공자의 비석에는 최고의 성인이라는 ‘지성(至聖)’이라고 되어있고 맹자의 무덤에는 ‘아성(亞聖)’이라고 되어있다.

### 5. 문헌서원

고려 문종 당시의 유학자인 문헌공 최충(崔沖 984~1068)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조선조 중종 38년(1543) 황해도 해주에 문헌서원이 세워졌으나 남북분단으로 해주 최씨 문중에서 오산에 재건립을 하였다.

최충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 후진 양성을 위해 사숙(私



〈그림 5〉 문헌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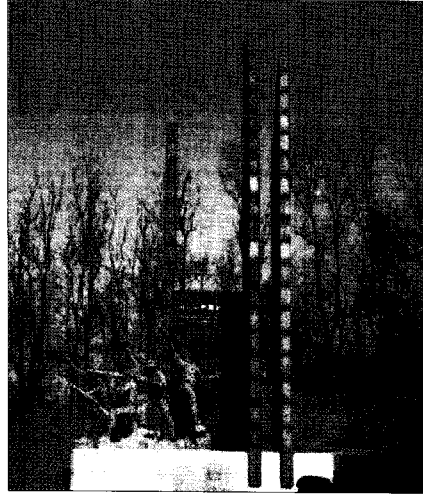
塾)인 구재학당을 열었으며 많은 과거 응시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다. 이 당시 국립대학인 국자감은 시설면이나 교육면에서 유명무실하던 시절이었다. 최충이 구재학당(九齋學堂)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 내자 고급관료 출신 학자들이 대거 사립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개경에 12학당이 생기는데 그것을 일러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라 하였다. 사학십이도 중 으뜸은 최충의 문헌공도(文憲公徒)였다. 이것은 최충의 시호를 따라 붙여진 것으로 이곳 학도의 수는 수

백 명에 이르렀고 이들 주도하에 개경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대대적인 유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학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인 최충의 흔적이 흡사 중국의 공자에 비견된다 고 하여 “해동공자”라는 별칭이 붙는다. 서천군에도 조선조 선조 때에 고려후기의 이색과 그의 아버지 이곡을 모신 같은 이름의 문헌서원이 있다.

## 6. 유엔군참전비

6.25 당시 UN군으로 참전하게 된 미군 24사단 소속의 스미스부대가 이곳 오산에서 북한군과 최초로 벌어진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스미스부대는 6월 30일 2개 중대 406명이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하여 7월 5일 오산 북쪽 죽미령에서 스미스부대는 밀려드는 북한군의 보병·전차부대를 맞아 보병·포병이 합동으로 6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

렀으나 적의 전차부대를 막지 못하고 안성을 경유하여 천안으로 철수한 전투로 이 전투는 미지상군부대가 한국전에서 최초로 싸운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



(그림 6) UN군 참전비